민관산학연 전문가들 환경 해법 찾는다

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오늘 '환경네트워크 포럼' 발족 35개 기업·21개 대학 참여 지역 현안 발굴·대안 제시

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분 야 교수와 연구소, 민간 기업과 환경단체, 행정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손을 잡았다. 이들은 지역 환경 오염과 현안을 발굴해 연구하고,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머리 를 맞대기로 했다.

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"30일 오후 3 시 전남대 여수캠퍼스 본부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'전남 환경 네트워크 포럼'의 발대식을 갖는다"고 29 일 밝혔다.

1998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전남녹색환 경지원센터는 전남지역 내 대학·연구소·기 업체·민간단체·행정기관 등의 환경역량을 결집시켜 주도적인 환경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환경 균형발전을 도모해 전남지역의 환경현안해결과 환경질 개선에 많은 역할 과 기여를 해왔다.

녹색센터는 그동안 매년 10억 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사업 221건(정책과제 66·조사연구 102·산학협력 53), 기업환경 기술지원 976곳, 환경교육 1506회(8만 664명), 환경보전행사 593회 등을 개최하 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.

이번포럼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, 전남 도, 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여수국가산업

단지 35개 입주업체, 포스코 여수산단환경 협의회, 전남대, 전남지역 21개 대학 등이 포럼에 참여한다.

이번에 발족하는 포럼은 민·관·산·학·연 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, 녹 색센터가 지역 환경현안 대응의 중추적 역 할을 수행하고 발굴된 환경현안, 아이디어 등은 국가·지자체 등을 통해 일선 현장에 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 준비됐

총 5개의 전문분과로 구성된 포럼은 각 분과별로 적합한 전문가가 참여해 주기적 인 발표와 토론을 실시하고, 최종적으로 지역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현안 을 분야별로 선정할 계획이다.

제1분과는 포럼 총괄 및 정책, 기후변화

대응, 지속가능 발전, 제2분과는 대기·미 세먼지·악취, 제3분과는 수질 및 해양수 질, 제4분과는 자연환경·습지·섬생태계, 제5분과는 자원순환 및 화학물질 등을 주 로 다루게 된다.

이번 포럼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, 분과별 주제발표,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의・토론하고, 향후 연말까지 분과별 회 의 1회, 전체 세미나를 진행하고, 2020년 부터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할 예

녹색센터 관계자는 "녹색센터가 지역 환 경현안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" 며 "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겠다"고 말했

/정병호 기자 jusbh@kwangju.co.kr



"영산강 우리 손으로 가꿔요"

첨단고등학교 봉사동아리인 '한우갈비' (한마음으로 우리는 갈수록 비상하는 첨단 인) 학생 20명이 최근 영산강변에서 정화 활동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이날 행사는 영산강에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진다는 소식을 들은 한 학생의 제안으 로 동아리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했고, 이들의 계획을 돕기 위해 광산구 청소년수련관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했다.

〈광산구청소년수련관 제공〉

미기록종 '검은댕기수리' 최초 발견

인천시 옹진군 소청도…우리나라 조류 60% 328종 서식

국내 미기록종인 검은댕기수리가 서해 소청도에서 최초로 발견됐다.

환경부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"지난 7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에서 지금까지 국내에 서 기록이 없던 검은댕기수리〈사진〉 1마리 를 처음으로 발견했다"고 29일 밝혔다.

연구진은 서해5도 지역 철새연구 중 지 난 7일 오후 3시, 이 새가 소청도 있는 국 가철새연구센터 인근의 소나무에 내려앉 은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했다.

이 새는 잠시 후 날아올라 센터 상공에 서 약 2분 정도 선회하다가 북쪽 대청도 방 향으로 날아갔다.

검은댕기수리 수리과의 조류로 전체적 으로 검은색이고 머리에 뿔과 같은 긴 깃 을 가지고 있어 연구진은 이 점을 참고해 국명을 가칭으로 검은댕기수리로 정했다. 환경부는 이 새가 본래의 분포권을 벗어



정하고 있으나, 향후 주기적으로 국내에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.

소청도는 철새 연구의 최적지로, 우리나 라 조류 540여 종 중 60%에 해당하는 328 종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멸종위기 조류도 다양하게 관찰된다.

무료로 해드립니다.(※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)

/정병호 기자 jusbh@kwangju.co.kr

소태천 도랑 살리기

광주전남녹색연합, 민·관 합작 식재·벽화그리기 행사

소태천의 자연성과 건강성 회복을 위해 소태천 도랑에 수생 식물을 심는 행사가 로하는 소태천 환경정비, 지역 학교와 연 진행됐다.

광주전남녹색연합은 "소태마을 주민들 과 동구청, 광주전남녹색연합, K-water 영산강보관리단이 함께 '소태천 도랑살리 기'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3일 소태천과 광주천 합류부에서 수생식물 식재 및 벽화 그리기 행사를 개최했다"고 29일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수생식 물을 심고 벽화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지속적인 관 심과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준비됐

이번에 식재되는 식물로는 소태천과 광 주천에 자생하는 고마리가 준비됐다.

그동안 '소태천 도랑살리기 사업'은 소 태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소태천 생태조

사 및 수질조사, 오수유입 차단을 중심으 계한 하천 교육, 주민지킴이 소태천 정화 활동 등을 진행했다.

소태천은 소태제에서 발원해 광주천 상 류에 위치해 있는 도심하천으로 소태천 상 류는 자연하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는 평가를 받고있다.

또한, 두꺼비, 도롱뇽 등 다양한 양서류 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이

하지만 인근 경작지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과 특히 복개 구간에서 다량으로 유 입되는 마을 오수 등으로 하류의 수질오염 이 심각해 2019년 환경부가 주관하는 '2019년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'으로 선정됐다.

/정병호 기자 jusbh@kwangju.co.kr

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

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77점 발표

소백산 '별 헤는 밤'



대상 남은주씨 '소백 영화봉 별밤'

무등산 '순백의 아침'



장려상 유계정 씨 '홍등'

국립공원공단은 "제18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 77점을 발표했다" 고 29일 밝혔다..

이번 사진 공모전에는 자연공원의 경관, 생태, 역사문화 등 다양한 소재 의 작품 3565점이 접수됐으며, 이들 작품 중 대상을 포함한 총 77점에 수 상의 영광이 돌아갔다.

연화봉 별밤'은 소백산의 별자리를 아 름답게 표현한 사진으로 심사위원들 로부터 호평을 받았다.

우리 지역 국립공원의 장관을 담은 사진들도 우수상과 장려상등에 선정

구정봉에서 바라본 월출산 일출을 담은 심우열 씨의 '월출산'이 우수상

을 수상했고, 눈 내린 등산 만연사의 홍등을 담아낸 유계정 씨의 '홍등'이 장려상을 차지했다.

또한 다도해 국립공원인 흑산도 상 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1월 일출의 모습을 찍은 김용대 씨의 '붉은 여명 에 빠진 흑산도'를 비롯해 지리산의 모습을 담아낸 김순권 씨의 '산사의 대상을 수상한 남은주 씨의 '소백 새벽', 김영화씨의 '달궁의 봄', 이만 해 씨의 '지리산 아침의 빛', 이정화 씨의 '꽃이 있는 지리산 노고단' 등도 장려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.

> 수상 작품은 28일부터 국립공원공 단 홈페이지를 통해 감상할 수 있으 며,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 활용에 한 해 사진을 내려 받을 수 있다.

/정병호 기자 jusbh@kwangju.co.kr

010-7614-1055

010–2845–4754

